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련거리 운영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이 지 혜**

- I. 서 론
- II.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련거리 운영여건
- III.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련거리 운영현황
- IV. 정책대안 및 향후 연구과제
- V.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와 목적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1)과 청소년기본법(1991)에 기초하여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작업이 지난 수 년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보고서와 문화체육부의 청소년수련활동사례집(1992), 청소년 단체별 수련거리자료집 등의 형태로 이미 여러차례 발간된 바 있다.

한편, 청소년 수련시설은 생활권 수련시설이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로, 자연권 수련시설이 수련마을, 수련의 집, 야영장으로 그리고 유스호스텔에 이르기까지 7종의 형태로 분류되어 전국에 걸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이 펼쳐져 왔으나,

아직까지 청소년들의 활용도가 낮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수련시설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이미 개발된 여러 종의 청소년 수련거리가 있으나, 이를 수련시설 측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수련거리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을 밝히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차작업으로, 수련시설의 수련거리 운영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어떤 수련거리가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시설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수련거리의 수련시설에서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련거리 운영여건과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수련거리 운영이 부진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수련거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이 글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청소년 수련시설 유형별 수련거리 운영현황 조사보고서」중 일부임.

** 문화체육부 청소년육성위원회 전문위원

이 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련활동 현황 전반을 조사하여 수련거리 운영의 여건이 어떠한지를 밝힌다.

둘째,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련거리 활용방법과 운영실태를 분석한다.

셋째, 조사결과에 터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수련거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한다.

2.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284개소(생활권 112, 자연권 166, 우스호스텔 6개소)중 26%에 해당하는 76개소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비율로 볼때 전수 조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매우 광범한 사례조사라 하겠다. 각 시설 유형은 앞서 밝혔듯이 모두 7종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전국 유일의 수련원인 부여수련원이 개관한지 얼마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모두 6종 76개소를 조사하였고, 이중 답변자료의 불충분 등으로 제외된 5개소의 설문지 외에 모두 71개소가 분석되었다.

2) 조사방법

조사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아래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1993년 11월 25~26일에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 시설운영자 세미나에서 주최 측의 협조를 받아 배포후 다음날 회수하였으며, 둘째, 한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중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담당 공무원의 견해와 시설의 규모와 명성 등을 고려하여 15곳을 선정하

여 우편으로 조사하였다. 셋째로 서울 지역내 7개 수련시설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하였다. 그리하여 교육담당자와 면접을 실시하고,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그리하여 총 76부를 회수하여 이중 유효한 71부의 설문지를 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외에 기존에 발간된 수련거리 관련 자료집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편람 등의 관련 문헌 자료를 참조하였다. 한편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을 위한 컴퓨터 통계 패키지인 SPSS를 이용하여 빈도와 변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II. 청소년수련시설의 수련거리 운영여건

1.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립과 운영

1) 설립연도와 설립주체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의 연륜은 매우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련시설 중 절반이상이 90년대 이후 설립되었으며(57.7%), 35.2%가 80년대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80년대 이전에 설립된 시설은 겨우 7%에 이르고있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 시설의 경험이 일천하여 운영의 체계를 확립하기에는 연혁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립주체별로 보면, 교육청이나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시설이 48곳(68%)으로 압도적이다. 이에 비해 민간 영리단체가 세운곳이 7%, 민간 비영리 단체가 세운 곳이 25%로 민간시설은 30% 남짓에 이르고있다. 이로 보면, 민간 대 공공 시설의 비율이 약 3대 7로 나타나, 전체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립자별 비율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조사의 의의를 높여주고 있다. 『1993 청소년수련시설편람』에 따르면 전국의 수련시설 중 국가, 지방교육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 수련시설은 73%이며, 개인 종교단체 민간단체가 설립한 시설도 27%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설립주체별로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비영리 민간단체가 설립한 시설의 56%(10곳)와 관립(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행정기관 포함) 시설의 60%가 90년대에 설립되어 정부 측이 청소년기본법 이후 수련활동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과 민간 측에서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모두 최근의 일로 청소년 정책 분야가 이제 시작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 운영주체 및 소재지

운영주체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47.9%(34곳)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일부 민간영리시설(7.0%)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은 민간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었다.(15.2%). 이를 위의 설립주체의 수와 비교해보면, 공공시설 중 30%에 해당하는 14곳은 민간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은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련시설의 소재지를 보면, 도시 혹은 도시 주변이 많았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합하여 도시가 39.4%이고, 여기에 도시근교(12.7%)까지 포함하면 52.1%가 도시를 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가능하면 청소년 가까이 위치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물론 생활권 시설은 도시에 자연권 시설은 농촌(21.1%)이나 산간지역(22.5%)에 자리잡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자연권 시설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일부 자연권 시설은 교통비 나빠 특별한 교통편외에는 접근이 곤란한 경우도 몇군데 있었다. 이럴 경우 대개 도로를 널

수 있는 지역이 그린벨트 내이므로 접근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것이 절차상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일부 시설 운영자들이 고충의 하나로 얘기하고 있다.

2. 시설운영의 인력 구성

1) 관리 인력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인력은 5명이하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곳이 40.8%로 가장 많았다. 5명 내지 10명은 19.7%, 1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39.4%로 나타났다. 여기서 관리인력이란 시설의 장, 경리, 총무, 관리자, 운전기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설의 기본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을 뜻한다.

이로 미루어 시설 자체의 유지를 위한 기본인력을 부족하나마 확보되어 있다고 하겠다.

2) 청소년 지도인력

청소년지도인력이라 함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뜻한다. 즉 수련거리를 자체 개발이든 외부의 것이든 직접 실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도인력으로 한정할때, 이는 바로 자립적인 운영능력 보유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열쇠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결과 대부분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지도인력 부분에서 결정적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도인력이 전혀 없는 곳이 21.1%(15개소)이며, 1~5명이하인 곳은 46.5%(33개소)로 5~10명 12.7%(9개소), 11~20명 12.7%(9개소), 21명이상 7.0%(5개소)등이다. 따라서 약 7할의 수련시설은 전문지도자가 없거나 5명이하의 극소수인력만으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수련거리 운영의 관건은 바로 지도인력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련거리를 운영할 수 있는 지도력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청소년지도인력보다는 오히려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인력의 비중이 더 높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련시설 중 전문 지도인력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21%나 된다는 사실이다. 아직까지 청소년 수련시설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징표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내용이 없는 껍질에 불과한 것이다.

3) 외부초빙 강사

상근 지도인력이 없다면 당연히 외부의 우수인력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일천한 상황이다. 수련시설 중 44.3%가 전혀 외부 강사 초빙 없이 자체에서 꾸려가고 있으며, 37.1%는 5명 이하의 강사를 초빙하고 있다. 즉, 8할 이상이 외부인력을 거의 쓰지 않거나 서너명만 초빙하고 있다고 보인다.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인원이 적은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자체인력이 충분하므로, 필요없는 경우와 둘째는 자체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수련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필요없는 경우이다. 앞서의 상근 전문인력의 확보 현황을 고려해볼때, 이 경우는 후자로 해석된다. 즉 수련거리가 별로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자체로도 외부로도 인력활용이 빈약한 것이다.

3.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용도

1) 연간 활용도

수련시설의 연간이용일 평균은 198일로 일년 중 절반 남짓 정도의 이용도를 보이고 있다. 평균

을 상회하는 200일 이상 수련시설은 전체의 40%가량으로 생활권 수련시설이 대종을 이룬다. 아무래도 자연권 시설의 경우, 시설 특성상 계절과 학기에 구애받아 이용일이 적었다.

한편 연간 이용가능일을 보면, 연평균 258일 가량 이용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시 수련관이나 수련실 등 생활권 수련시설이 300일 이상 이용가능한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시설별 연 이용인원 평균은 20,44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련실의 경우에는 연간 5000명 이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예가 많았으며, 수련마을이나 유스호스텔의 이용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설유형별 연평균 활용율

수련시설 유형별 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평균활용율과 평균 이용인원을 보면 조사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여기서 연평균 활용율이란 이용일/이용가능일 $\times 100$ 을 뜻한다. 이를 보면 수련시설 중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이용가능한 날의 96%이상을 개방하고 있어서 가장 활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의 위치나 운영인력의 구성, 독서실 운영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생활권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수련실의 활용율(62%)이 낮은 것은 인력과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여 수련거리를 제공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개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자연권 시설에서 야영장이 활용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이용가능일 자체가 계절적으로 한정되어 다른 시설에 비해 짧기때문이다. 그러나 시설을 개장할 수 있는 계절에는 적어도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유스호스텔과 수련의 집이 모두 60% 이상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수련마을은 오히려 활용을

〈표 1〉 청소년 수련시설 유형별 연평균 활용율과 이용인원

유형	활용율(%)	이용인원 (명)	조사대상 (개소)
〈생활권〉	72.5	22,273	24
수련관	96.4	51,514	8
수련실	62.1	11,308	16
〈자연권〉	68.0	20,531	43
수련마을	47.0	36,125	4
수련의집	64.1	16,208	22
야영장	81.9	21,220	17
유스호스텔	61.2	47,416	3
총계	65.2	20,448	70

이 50%에 못미치고 있다.

연평균 이용인원으로 보면, 생활권과 자연권 모두 2만명 남짓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의 규모때문

에 생활권 수련시설 중에는 수련관을, 자연권수련 시설에서는 수련마을을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4.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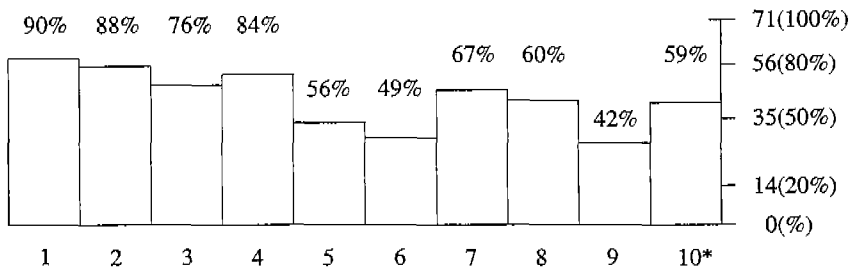
1) 보유시설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들은 실내집회장, 강의실,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등의 시설은 대체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떤 특수한 시설이 있다가 보다는 크고 작은 실내외 ‘단순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많은 시설들의 공통분모인 것이다. 여기에 자연권 시설은 숙박시설과 야영시설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으며, 복합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일부 시설은 모험훈련시설이나 자연체험장을 덧붙여 보유하고 있었다.

시설 종류별로 보유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시설 종류별 보유율



*시설종류

- 1) 실내 집회장 : 강당, 회의장, 공연장, 체육관, 극장.
- 2) 강의실 : 강의실, 소회의실, 시청각실, 토의실, 예절실 등
- 3) 야외집회장 : 캠프파이어장, 노천극장, 운동

장 등

- 4) 체육활동장 : 체육실, 체육관, 탁구장, 체력단련장, 탁구장 등
- 5) 체육시설 : 실내외수영장, 스케이트장, 모험(개척, 극기훈련)시설 등
- 6) 자연체험장, 자연학습림, 사육시설, 관측시

설, 영농시설, 기타

- 7) 숙박시설, 청소년숙박실, 식당, 기타.
- 8) 야영시설 : 야영장, 급수대, 세면시설
- 9) 학업관련시설 : 어학실, 독서실, 컴퓨터실, 기타
- 10) 상담시설 :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2) 활용도가 가장 높은 시설

보유시설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는 실내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로 강당, 공연장 등 실내 집회장과 강의실 형태의 모임실이 꼽혔다. 69곳의 시설 중 28곳인 40%가 이러한 실내 수련활동 공간을 1순위로 들고 있어서, 생활권이 든지 자연권이든 실내활동 위주로 수련거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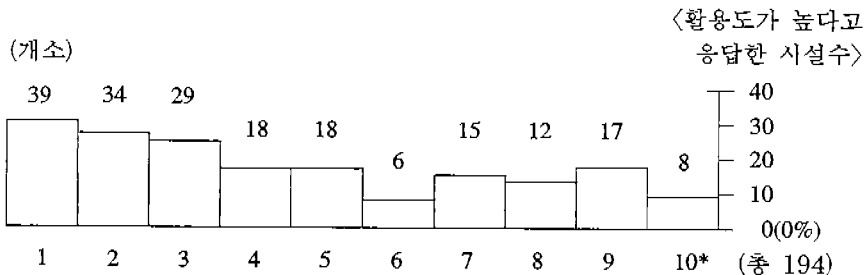
가장 빈번히 활용하고 있는 시설로 응답한 1, 2, 3 순위의 시설을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빈도수를 합하여 본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종합 순위에서도 역시 실내의 대소집회장과 야외집회

장이 활용도가 높게 응답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체육관련시설 즉 탁구장, 농구장 등의 체육활동장 혹은 수영장이나 모험훈련시설과 같은 체육시설을 빈번히 활용하고 있었다. 이를 각 수련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비교해보면, 실내 대소 집회장과 야외집회장은 보유율과 비례하나, 체육 활동장과 체육시설은 시설 보유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특기할 점은 독서실 등의 학업관련시설의 활용율이 높다는 점이다. 독서실은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도 관리자만 있으면 상시 개방할 수 있다는 이점때문이기도 하나, 수련거리 운영에 있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례조사를 위한 면담에서 시설의 수련거리 운영자들은 청소년들을 일단 시설 가까이 오도록 하는데 있어서, 학업관련시설의 효과가 크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유시설 중에 학업관련시설의 활용율이 높다는 점은 그런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독서실 등의 학업시설이 적어도 청소년

〈표 3〉

시설 종류별 활용도



* 시설의 종류 : 앞의 표와 동일

이 시설을 친근하게 생각하게 되어, 그 이후의 수련활동에 참여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보유 교구

각 수련시설이 어떤 교구를 보유하고 있는가는

각 시설이 얼마나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다. 그러나 대체로 현재의 교구 보유 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시설이 시설내 방송이나 앰프시설, 칠판 등 가장 기본 교구만을 갖추고 있을뿐 그 외의 교구들은 별로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정도 기본 시설마저도 100%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모임 활동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작업대나 짜맞춤 탁자의 보유율도 겨우 20%를 상회할 뿐이다. 그런 반면에 비디오 플레이어 보유율은 81%로 높게 나타나, 비디오를 활용한 수련거리의 제공은 대개의 시설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다 역동적인 강연이나 시청각 교육에 필수적인 보조교구인 오버헤드프로젝터나 슬라이드 영사기의 보유율은 각기 32%와 38%로 아주 낮아 실내 수련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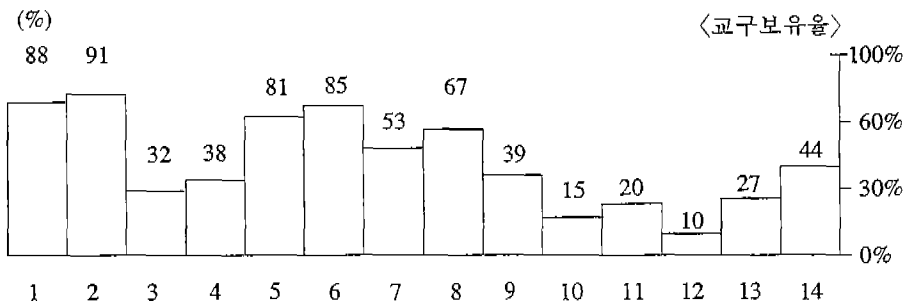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속놀이기구나 전통악기의 보유율도 절반을 간신히 넘거나(53%),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어서(38%) 민족적 정서 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실현도 그리 좋은 여건이 아니다. 또한 생활권 수련시설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학업관심에 맞추어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교구로 보이는 학습용 컴퓨터나 어학학습시설의 보유율은 더욱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명시설의 보유율은 절반에도 못미치지만 44% 정도로, 공연장이나 실내외 공연장을 확보하고 있는 수련시설에서는 대체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현재의 청소년 시설의 교구로는 좋은 수련거리가 있다하더라도 원활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다.

〈표 4〉

수련시설의 교구 종류별 보유율



〈교구의 종류〉

- | | | |
|-------------|--------------------|--------------------|
| 1) 시설내 방송시설 | 2) 마이크 앰프시설 | 3) 오버헤드 프로젝터(OHP) |
| 4) 슬라이드 영사기 | 5) 비디오 | 6) 칠판 |
| 7) 민속놀이기구 | 8) 체육기구(탁구대, 매트 등) | 9) 전통악기(장고, 팽파라..) |
| 10) 학습용 컴퓨터 | 11) 짜맞춤탁자 | 12) 어학학습시설 |
| 13) 작업대 | 14) 조명시설 | |

Ⅲ. 청소년수련시설의 수련거리 운영현황

1. 수련거리 집중 운영 시간대

일과중 수련거리를 운영하는 시간은 대개 청소년들의 방과 후인 오후부터 저녁시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루 종일이라고 응답한 곳은 대개 자연권 수련시설들로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온 종일 수련거리를 운영한다고 응답하였다(전체 시설의 49.3%). 따라서 생활권 수련시설에 한정하여 살펴볼 경우, 생활권 시설 36개소 중 55%(20개소)는 오후 시간에, 45%(16개소)는 저녁 시간에 수련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시간구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수련시설 운영 현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 주간의 이용시간대를 보면, 역시 평일 중의 활용도가 높았다. 금요일까지의 평일에 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 37.1%였고, 토요일을 포함한 주중에 수련거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24%였다. 즉, 평일에 주로 수련거리를 제공하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61%). 이에 비해 청소년들이 비교적 여가시간을 확보하기 쉬운 주말에 실시하는 곳은 17.1%에 불과하여 청소년의 시간대와 시설의 운영시간대가 잘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요일을 포함하여 한주내내 실시하는 곳도 21.4%인 15개소로 집계되었으나, 이중 10개소는 자연권 수련시설이어서 일상생활 중에 활용하기는 불편한 점이 많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학교와 직장애 매여있는 청소년들이 정작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열려있는 수련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면접에 의한 사례연구 결과, 이는 수련시설의 운영여건과 관련이 있었다.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력때문에 주말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없는 대부

분의 수련시설 종사자들은 주말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참여하는 청소년이 가능한 시간이 아닌 실시자가 가능한 시간에 수련거리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입장이 아닌 제공자의 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련시설 운영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중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때는 연간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47%로 가장 많았고, 여름방학이 15.7% 동하게 포함한 방학기간이 역시 15.7%로 방학기간을 이용한 수련거리 제공시설이 모두 31.4%에 이르렀다.

이를 시설의 성격별로 보면, 아무래도 생활권 수련시설은 기간과 관계없이 연중 내내 수련거리를 운영하는 기관이 72%로 압도적이었고, 일부 생활권 수련시설은 방학기간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그런 반면에 자연권 수련시설은 연간 집중 활용기간이 방학기간, 학기중, 연간 내내 등 세 응답이 골고루 나왔다. 생활권시설에 비해 학기중 이용율이 높은 까닭은 수학여행, 생활관 입소등으로 인하여 숙박을 포함한 수련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수련거리 활용방법

수련거리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개발하거나, 자체개발과 외부에서 개발한 수련거리 적용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곳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다. 조사한 청소년 시설 중 38.6%인 27개소가 자체에서 수련거리를 직접 개발한다고 응답했으며, 다른 곳에서 개발한 수련거리의 응용이 11.4%, 이를 병용하는 곳은 24.3%로 집계되었다. 그밖에 시설을 임대하되 참가자 측이 알아서 수련활동을 진행하는 곳이 14.3%이고, 단지 임

〈표 5〉

시설의 지도인력 확보 인원별 수련거리 활용방법

(개소/%/%)

활용방법 지도인력	자체 개발 + 외부응용병행	외부응용	시설 단순임대 및 참가자 직접진행	합계
전혀 없음	3	1	11	14
방법별비율	21.4	7.1	78.2	100.0
인력별비율	6.8	12.5	61.1	
5명 이하	23	4	5	32
	71.8	12.5	15.6	100.0
	52.3	50.0	27.8	
6명 이상	18	3	2	23
	78.3	13.0	8.7	100.0
	40.0	37.5	25.0	
합 계	44	8	18	70
방법별비율	62.9	11.4	25.7	100.0

대만하며 아무런 수련프로그램이 없는 곳도 11.4%에 이르고 있다. 즉 전체 수련시설의 4분의 1 가량은 거의 수련거리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겠다.

단순히 이 자료만 본다면 수련거리의 자체 개발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보았듯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개발’이라는 응답의 속뜻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인력과 수련거리 활용방법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수련거리 지도 운영인력을 6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시설의 78.2%가 자체에서 수련거리를 개발하거나 다른 곳 수련거리를 응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이 없는 곳의 61.1%는 당연히 시설의 임대애 그치고 있다. 예상대로 운영인력의 수와 수련거리 개발 운영능력이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로 미루어 수련거리 개발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도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수련거리의 개발과 보급

1) 수련거리 인쇄자료집에 대한 만족도

그간 문화체육부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발행한 수련거리 자료집이 시설운영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이 23.9%,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이 36.6%로 절반이 넘는 61%의 응답자가 인쇄자료집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해 주었다. 반면 그저 그렇다는 사람이 14.1%, 별 도움이 안됐다는 사람이 합쳐 4.2%였다. 그러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21.1%로 자료집의 배포와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이다. 일부 시설은 시설 자체로 배포가 안된 경우도 있으나, 많은 시설은 시설 내에서 수련거리 운영자에게 정확히 전달이 안되어서 빚어진 예도 많은 것으로 짐작되었다.

2) 수련거리 보급 방법

앞의 응답 결과를 보면 수련거리 보급방법으로서 인쇄자료집의 배포는 비교적 좋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말할 수 있으나, 다음의 가장 선호하는 수련거리 보급방법에 대한 견해와 묶어서 보면, 최선의 방책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좋은 수련거리가 있을때, 바람직한 보급방법이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압도적 다수(69.0%)는 시설이나 단체의 지도자 대상 연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현재의 취약한 운영여건 하에서는 단순히 문자로 기록된 정보만으로는 의미가 약해지며, 수련거리의 실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련거리별 워크샵 등 지도자 연수가 훨씬 더 효과적인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인쇄자료집의 배포도 18.3%정도가 성호하고 있으므로, 두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또한 일부 시설에서는 전문지도자와 수련도구를 함께 직접 파견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어서(12.7%), 수련거리 운영의 실제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설 유형별로 수련거리 보급방법 선호도를 보면, 시설유형에 관계 없이 고르게 지도자연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지도자 연수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시설유형은 수련의 집으로 집계되었다. 앞서 수련의 집은 비교적 수련거리 운영인력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는데,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있을수록 오히려 우수하고 새로운 수련거리에 대한 관심과 연수에 대한 필요는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거꾸로 생각한다면 운영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히 수련거리를 진행하기에는 지도자들이 전문역량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표 6)

시설유형별 우수 수련거리 보급방법 선호도

(개소/%)

유형 보급방법	수련관	수련실	수련마을	수련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계
인쇄자료집 (방법별비율)		4 25.0	1 25.0	3 13.6	5 29.4		13
지도자연수	6 66.7	11 68.9	2 50.0	18 81.8	10 58.8	2 66.7	49
지도자파견	3 33.3	1 6.3	1 25.0	1 4.5	2 11.8	1 33.3	9
합 계	9 100.0	16 100.0	4 100.0	22 100.0	17 100.0	3 100.0	71

3) 수련거리의 개발과 보급 주제

한편 수련거리의 개발과 보급은 누가 주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의 응답자인 45.1%가 청소년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 청소년개발원을 들었다. 문화체육부라고 답한 사람은 21.1%, 지방자치단체라고 답한 사람은 7.0%로 28.1%의 응답자가 정부측이 주도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설협의회나 단체협의회가 주도하기를 바라는 곳은 12.7%, 개별단체가 시설에서 주관해야한다고 답한 사람은 14.1%로 약 27%의 응답자의 민간의 청소년 단체나 시설의 주도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도 역시 한국청소년개발원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보다 적극적인 수련거리 개발 보급자로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단, 이 설문에서는 대학이나 단체를 비롯한 민간 연구소의 보기가 제외된 점은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4. 수련거리 운영재정과 애로사항

1) 수련거리 운영재정

수련시설들의 절반 이상(54.9%)이 운영재정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 정부 측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외의 재원으로 들고 있는 것은 운영을 맡고 있는 단체 측의 지원(15.5%)이나, 독서실 운영 등 수련활동 외의 재정사업(16.9%)에 힘입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수입에 의존하는 곳은 9.9% 미만이었다. 요컨대 청소년 시설 자체의 재정자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최소한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 뿐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현재의 청소년 수련시설들은 대체로 현상 유지에도 급급한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새로운 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수련활동을 확산해가는 일은 거의 엄두를 내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2) 수련거리 운영의 애로사항

앞서 운영재원 조달방법에서 짐작되었듯이, 현재 청소년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재정 빈곤(45.1%)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지도인력의 부족(25.4%)이, 그리고 재정과 인력에 비교적 덜 어려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다음으로 청소년 모집에 대한 어려움(23.9%)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뜻밖에도 청소년 수련거리를 개발(5.6%)하는 일은 가장 아랫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련거리의 문제가 덜 중요하기때문은 아닐 것이다. 기본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개선을 위한 수련거리 개발이나 운영은 다음 문제로 밀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권 시설 중에 많은 곳은 재정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수련활동시설 아닌 학원의 아류로 변질된 예도 많았다. 즉, 손쉽게 유료강좌를 할 수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속셈, 영어, 수학, 컴퓨터 등—위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인의 이용 비중을 대폭 높이어, 수련시설 설립의 본 뜻을 흐리는 예도 많다.

운영재정 부족은 또한 지도자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낮은 처우수준으로 좋은 전문지도자를 확보할 수 없으며, 왔다가도 열악한 조건때문에 이직율이 매우 높아 경험이 축적될 겨를이 없었다. 지도자의 부족은 곧 수련거리의 빈곤으로 나타나고, 질낮은 수련거리에 청소년은 모여들지 않는다. 이는 또 가뜩이나 모자라는 운영수입 부족을 부추

켜, 열악한 시설운영이라는 결과를 낳아 계속 악순환되는 것이다.

IV. 정책 대안 및 향후 연구과제

1. 청소년 수련거리의 개발과 보급 활성화 방안

- 1) 수련거리를 개발할때, 지역성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련거리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한다.

현재 수련거리는 6대 지표를 중심으로 내용별로 분류하여 개발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수련거리의 실행 터전이 되는 수련시설들은 지역, 시설유형, 인적 자원 등에 따라 처해 있는 상황의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향후 수련거리의 개발 과정에는 이러한 변인의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 기본형 수련거리의 개발과정에 가능한 여러 지역의 청소년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당 지역의 가용 자원(문화자원/인적 자원 등)과 청소년의 필요를 청취하여 이를 반영한다. 예컨대, 문화유적 탐방 수련거리라면, 지역별로 방문에 적합한 문화유적에 관한 정보를 실어 주는 것이다.
- 지역별 수련거리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역내 우수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수련거리를 개발한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계기로 지역내 청소년 문제에 관심있는 자원인사들이 서로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별로 개발한 수련거리는 지역 간에 상호

교류 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정보센타를 설치하고 교환을 원하는 지역간에 연결을 시켜준다.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 현재 시설이 보유인력, 시설, 수련도구 모두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본형 수련거리를 제시할때는 필요 시설과 수련도구, 지도자의 특성을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제공받을 수 있거나 빌려쓸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명시해준다. 예를 들어, 전통농악을 배우는 수련거리라면, 농악연습에 필요한 악기의 대여처, 농악전문지도자의 일람, 진행에 관련한 문의처 등을 함께 제시해주어야 비로소 수련거리가 실효를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더욱 바람직하기는 수련거리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일 것이다.

2) 개발한 기본형 수련거리 보급방법을 다원화한다.

현재까지 수련거리의 보급은 주로 인쇄매체에 의존해왔다. 이에 대해 60% 이상의 응답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고 있으나, 가장 선호하는 보급방법은 시설에 있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직접 연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련거리의 보급은 여러 매체를 복합활용하여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련거리의 보급은 지도자, 원격통신, 시청각매체, 인쇄자료로 다양하게 제시한다. 그 방안으로,

- 단위 수련거리별 지도자 연수 워크샵을 마련하며, 가능하다면 이는 지역별로 순회 개최한다.
- 비디오 테이프, 슬라이드 필름, 지도자용 수

런도구, 카세트 테이프, 지도자용 매뉴얼 등 수련거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팩키지화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한다.

- 대개의 수련거리들이 일회의 연수만으로는 체득하기에 곤란할 것이므로,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샵 후 후속교육으로 컴퓨터 통신, 일반 우편 등을 통한 원격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서는 해당 수련거리의 실시사례와 실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보완책을 제공한다.
- 수련거리에 대하여 실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점을 해결하고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 이는 청소년개발원이 중심으로 구성하되, 현장지도자 상호간의 경험교환도 중요하므로, 컴퓨터통신 내에 청소년 수련거리에 관련된 대화의 장을 개설하여, 누구나 관심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인쇄자료로 제공하는 때에도, 수련거리의 내용외에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몇 가지 기본 변인-지역, 시설과 지도인력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가능한 자세히 명기해준다. 즉 자료집을 일종의 '종합정보집'의 성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청소년 수련거리의 상호교류와 축적방안을 강구한다.

좋은 수련거리는 공유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금처럼 대부분의 청소년 시설이 연륜이 짧아 축적된 수련거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거리의 축적과 상호교류는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다.

- 청소년 수련거리의 종합은행 설립 추진.

청소년 수련거리의 자료은행을 만들어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종합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여기서는 청소년 수련거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련거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자원을 한데 모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사진자료, 비디오, 슬라이드, 지도자 매뉴얼, 청소년용 교재, 악기 등 수련도구를 포함한 모든 자료가 해당된다. 또한 청소년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에 관한 자료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소지한 전문역량, 연락처, 성별 연령 등 기본 특성을 포함시킨다.

- 청소년 수련시설간의 연계망을 구축.

현재 추진중인 청소년 시설 협의회를 강화하여, 각 시설간에 보유하고 있는 수련거리, 지도자, 수련도구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운영 개선 방안

1) 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용도 제고

(1) 프로그램 개설 시간을 청소년 여가시간대에 맞춘다.

보라매청소년회관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은 주말 시간대에 맞추어 집중 편성하여 시설의 효용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시설이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저녁시간이나 주말은 개방하지 않는채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문제제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 하겠다. 청소년 학사일정표를 항상 고려하여 시험기간은 피하고, 특히 주말시간과 방학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면접조사 결과 아무 부담이 없는 봄방학기간이 일년중 가장 수련활동 운영의 적기라는 응답도 있었다.

(2) 청소년의 필요와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수련시설의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의 필요에만 맞으면 홍보 없이도 많은 청소년들이 몰려온다고 한다. 어떻게 수련거리의 내용을 청소년 관심에 맞게 꾸미느냐가 관건이며, 수련거리 개발 기획과정에 경험많은 현장 지도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학업관련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시설 접근 가능성을 높인다.

학업과 관련한 시설(독서실, 컴퓨터 교실, 어학실)을 적절히 배치하여, 학부모와 청소년의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학업상 필요에 의해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청소년 시설의 운영 내실화 방안

(1) 청소년 시설 설립과 운영의 기준 강화
- 청소년 시설의 설립기준을 강화하여, 인가시에 기본시설 외에 갖추어야할 기본인력과 교구에 대한 준거를 마련하여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기본 인력에 대한 준거를 강화하여 최소한 청소년 지도 전문인력 2인 이상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 유형별 운영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권장하고, 이의 준수를 유도할 기제를 마련한다.

- 수련시설에 대하여 정부가 운영비를 보조할 경우, 보조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한다. 현재 지방비의 보조를 받는 경우, 각 시·군·구에 따라 아무런 기준이 없어서 지원액 산정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수련시설 위탁 운영자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각 지방자치정부의 사정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최소한의 공통준거들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대표수련시설의 운영 강화

현재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 28조 3항에 규정된 '대표수련시설' 운영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수련시설 운영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한다. 법 조항에는 대표수련시설은 수련거리의 보급과 관할지역 내 수련활동의 기록 및 수련활동에 대한 정보교류의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표수련시설의 운영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1차적으로 94년에는 1-2개소의 대표수련시설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곳에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93년도에 개발한 수련거리를 실행하여 평가·시정·보완하며, 지역 내 실정에 알맞게 변용하도록 한다. 또 그간 개발된 수련거리에 관한 자료와 여기 필요한 교구 및 훈련된 지도자를 확보하여, 필요시 인근 지역 내 수련시설에 대여하거나, 지도자와 함께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V. 결 론

이상의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련거리 운영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는 현재의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현재의 수련시설은 실제로 수련거리를 제대로 운영할만한 역량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인력, 시설, 수련도구 등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에 맞게 수련거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한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 지도인력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수련시설은 빈 집과 다름없다.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수

련거리 운영이 부진한 까닭은 적절한 수련거리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시설에 적합한 것을 차지 못해서가 아니다. 현 여건 하에서는 적절한 수련거리에 대한 적극적 탐색이 없었거나, 찾았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련시설의 수련거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련거리 개발에 훨씬 앞서서, 수련거리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필요조건을 충족되어야만 한다. 즉, 수련시설의 기본 운영재정과 청소년지도인력의 확보 없이는 아무리 우수한 수련거리라 할지라도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수련시설에서의 수련거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로 가장 선행해야 할 것은 수련시설 운영의 개선이다. 수련시설을 짓기에 앞서서 운영의 세부계획과 인력, 재원 등의 운영요건 충족이 반드시 이루어 지도록 하고, 이미 지어진 수련시설

들은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여, 수련거리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둘째로는 수련시설과 수련거리를 이어줄 유일한 끈인 청소년 지도인력의 양성이다. 이때, 지도인력은 단지 자격증을 소지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현장 경험과 구체적 수련거리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합한 수련거리를 선별하고 진행할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로는 수련거리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수련거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역성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고 보급방법을 다원화하여 수련시설에서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결국 현실의 모습은,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이란 지도자와 시설 수련거리가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기본 원칙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 문화체육부. 1993. 청소년기본법령집
 _____. 1993. 청소년수련활동 자료집
 _____. 1993. 1993 청소년 수련시설 편람
 _____. 1993. 청소년 백서
 _____. 1991.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안내
 박명운 외. 1991. 청소년 수련거리 실태조사 및 개발방향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연구원
 유병림 외. 1993. 청소년 수련시설 설계기준 및 모형개발연구, 문화체육부 용역사업 보고서.
 충청남도. 1993. 전국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 세미나 자료집
 체육청소년부. 1992. 청소년수련활동 사례집
 _____. 1991. 한국청소년기본계획